

언론 사람

2018
vol.213

03

04

인터뷰

건축가 유현준

09

언중노트

확신의 함정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모스크바 '더 개러지 뮤지엄'





글·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명상과 요가의 힌두성지인 리쉬케시(Rishikesh).

뜨거운 태양이 서쪽 하늘로 넘어갈 즈음,
갠지스강은 순례자들의 염원을 담은 꽃 집시 향불에 붉은빛으로 물든다.

강 옆 계단(가트) 돌바닥에 메리골드 꽃망울과
향초를 펼쳐 놓고 노점을 연 소녀들을 만났다.

힌두인들은 갠지스강에 몸을 담그며 영혼의 때를 씻어낸다.
이 강이 신성한 것은 신들이 살고 있는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녹은 물이 모여져 만들어졌기 때문.

이들에게 삶의 시간은 그저 돌고 도는 윤회의 한 순간일 뿐!
팍팍하고 고단한 삶도 잠깐 왔다 가는 여행일 뿐이다.

강가 가트의 벽에 적힌 문구가 짧지만 인상적이다.

Think Like A Genius 천재처럼 생각하라

Work Like a Giant 거인처럼 일하라

Live Like a Saint 성인처럼 살라

CONTENTS

2018 March
Vol.213



언론+



사람+

02 Close-Up

04 인터뷰
건축가 유현준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06 빅데이터 읽어주는 기자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내 안의, 우리 안의 #미투(Me too)

07 언론법 이모저모
북한 응원단과 프라이버시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아이

09 언론노트
확신의 함정

10 세상읽기
미닝 아웃의 시대

11 푸드텔링
샐러드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모스크바 '더 개러지 뮤지엄'

15 따뜻한 아이디어
가져가고 싶은 쓰레기봉투
훗사크(Goedzak)

발행인 양인석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3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적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에 사람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 풍경이

“걷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보행자 중심의 행복한 거리를 강조하며
닫힌 곳을 열어,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는 공간을
꿈꾸는 건축가 유현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시와 건축의
조화로운 모습을 그와 함께 그려보자.

Q | 출연하신 tvN의 <알쓸신잡2>에서 전혀 다른 분야의 네 출연자가 보여준 조화로운 호흡이 화제였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데 인색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데 익숙했던 대중들의 답답함이 해소된 덕분 일까요? 단연 돋보였던 '케미'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A | 상대에 대한 존중이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김정운 교수님이 'respect (존중)'를 “나는 당신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정의하셨는데, 함께 출연한 세 분이 딱 그러했습니다. 성향과 전문분야가 모두 상이한 분들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70~80명 정도의 스텝이 움직이는데,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어 지시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스텝 모두가 일상불란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며 흐름을 만들어 갔고, 여기에 재미까지 더해 지니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보통 6~7시간 정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양한 화제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대본 없이 녹화를 시작하지만 말이 끊이지 않았지요. 특히 저와 유시민 선생님은 생각하는 속도와 패턴 면에서 주파수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을 바로 확인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세 분 모두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Q | 교수님께서 설계한 플로팅하우스, 머그학동, 압해읍 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개성있고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일관된 경향성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현준의 건축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일관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땅의 느낌이 다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재료를 써야 하고 그래서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포도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포도의 품종, 기후, 만드는 사람, 숙성기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건축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관계'입니다. 건축이란 바닥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다시 말해 공간을 구획하는 일입니다. 빈 공간을 인간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획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처리가 중요하지요. 방과 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지, 1층과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지 등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냅니다. 그 관계를 위해 건축물의 외벽은 하얀색일 수도, 빨간색 벽돌일 수도, 곡선일 수도 있겠지요.

Q | '마당이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쌍문동 골목길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역시 거실이라는 '마당'을 통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얘기일까요?

A | 문과 창문은 다릅니다. 문은 열어도 안을 볼 수 있고 사람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문은 열어도 안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문이 훨씬 더 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창문은 좀 약한 관계를 맺는 셈입니다. 한옥은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 마당이 보이

고 그 너머로 사랑방이 보이잖아요. 개인 공간에 있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의 여지가 있는, 느슨한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역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거실 너머의 아이들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자신만의 공간을 원할 때에는 창문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창을 통해 거실과 소통할 수 있어 집은 더욱 넓어 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벽 자체가 구조체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보강을 하면 얼마든지 창문을 뚫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Q | **혹자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단조로움과 갑갑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A | 우선 학교 담장을 허물고 운동장 주변에 상가를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에 문방구, 과일가게, 카페와 같은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건전한 업종의 상가를 두는 것이죠. 지금은 운동장을 지켜보는 시선이 없어 담장을 허물면 아이들이 위험하지만 상가가 항상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학교는 안전해집니다. 방과 후에는 유럽의 광장처럼 시민들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금지해야 합니다. 도시가 삭막해 보이는 것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공간과 오피스빌딩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주민들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사적인 외부공간이 없습니다. 인도, 차도, 공원과 같은 공적인 외부공간뿐입니다. 어렸을 때는 속옷 바람으로 마당에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편안하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산복이 많이 팔리는 것도 이 때문에 아닐까요? 자연을 만나려면 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발코니를 없애는 목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발코니 면적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발코니를 원할 것입니다. 발코니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햇빛도 쬌고, 차도 마시고, 도시의 풍경도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Q | **용산 미군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의 공간을 기대하시는지요?**

A | 저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광대해서 밤에는 들어가기 위험한 공원보다는, 가운데 군 부지는 비무장지대(DMZ)처럼 그대로 보존하고, 가장 자리만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이 인간의 흔적들을 지워가면서, 또 군 부지가 다시 자연으로 복원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제 아이디어가 상은 받았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출품된 아이디어 중 작은 공원을 여러 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00만 평짜리 공원 1개가 아닌, 만 평짜리 공원 100개를 만든다면 시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많아질것지요. 나아가 여러 개의 공원이 서로 연결된다면 보행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건축가
유현준

‘걷고 싶은 도시’라 함은 한쪽에 대중교통 라인이 있고 한쪽에 녹지가 있어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공원을 목적으로 삼아 즐길 요소가 가득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보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상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 쇼핑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점점 자동차 중심으로 변하고 또 삭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지하철역이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역과 역 사이에 공원이 많아지고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상가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레 걷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Q | **좋은 건축물, 좋은 건축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A | 좋은 건축물요? 설계자도 만족하고 건축주도 만족하는 건물이 아닐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편입니다. 나아가 그 건축물을 오가는 시민들도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끼리 더 화목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앞에서 ‘사람의 관계’를 강조했듯이,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도 많겠지만 잘 디자인된 건축을 통해서 훨씬 더 조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전공 교수,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 ◎ 2016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 ◎ 201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 ◎ 2003 ~ 2005 '리차드 마이어 아키텍츠' 활동
- ◎ 저서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2015), <유현준 교수의 도시를 완성하는 73가지 건축이야기>(2011) 등
- ◎ 방송 : <알쓸신잡2>(2017), <20세기 소년 탐구생활>(2017) 등



북한 응원단과 프라이버시

김주연 | 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언론도 이들이 흘린 땀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 된 열정’이라는 올림픽 슬로건에 걸맞은 뜻깊은 일도 있었다. 남북한 선수들의 공동입장과 북한 응원단의 방한이었다. 언론은 북한 응원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도했다. 하지만 과한 관심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법이다. 몇몇 언론사는 북한 응원단이 화장실을 향해 질서 정연하게 걸어가, 화장실에서 줄을 서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만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기사화했다. 또 어느 언론사는 북한 응원단이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 모습을 밖에서 몰래 찍어 보도하기도 했다. 기자는 숙소에 북한 방송이 나오지 않아 남한 방송을 보고 있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였다.

지금은 사생활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사실 사생활권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권리는 189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워렌과 브랜다이스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 되어야 관련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워렌은 “삶의 고통, 기쁨, 이익에서 물적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 감정, 느낌까지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사생활권을 ‘혼자 있을 권리’라고 말했다.

사생활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올리버 시플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슬프게 드러난다. 시플은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암살을 막은 사람이었다. 시플이 총을 겨누고 있는 암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암살 시도를 무산시켰고, 언론은 이 용감한 행동에 열광했다. 시플은 언론에 자신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언론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까지 밝혀내고 말았다. 당시 1970년대는 동성애에 대해 반감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기였고, 그는 부모에게 의절당한 채, 결국 알코올중독에 빠져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다. 대통령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었다면, 그의 성적 정체성은 그만의 사생활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그의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았고, 그의 평온은 순식

간에 깨어졌다. 누구나 외부에는 밝히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방이 있고, 그것이 공개될 가치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그리고 공개를 허락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은 가능할까. 동의 없이 사적인 장소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편지 등을 무단으로 봤다면 비밀침해죄도 가능하다. 그밖에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면 퇴거불응죄, 주거를 무단으로 수색했다면 주거수색죄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적 장소를 밖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는 도촬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율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도촬 행위를 단순히 성적 범죄로만 보지 않고, 사생활 침해 범죄의 성격도 있다고 보아, 사적 장소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데, 인간이 물리적으로 침입한 경우와 밖에서 촬영한 행위의 가벌성을 구분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 사생활 보도가 모든 경우에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한 언론사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던 정치인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몰래 찍어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고의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를 취재하기 위해 동의를 받지 않고 주거, 공장 등에 가서 무단으로 촬영하고 인터뷰를 요구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중의 관심사이고 부득이한 촬영 과정이라고 보았다. 결국에는 사생활의 무게와 국민의 알 권리의 무게 중 무엇이 더 무거운지의 문제일 것이다. 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응원단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무게보다 사생활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속 아이

유선주 | 드라마평론가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본 로봇 만화의 로봇에서 점심에 연예인으로 둔갑했다가 저녁에는 그림책 속 공룡이 되고 싶어 하죠. 내일은 반 친구의 꿈을 흉내 낼지도 모릅니다. 믿고 의지하는 주 양육자의 평가나 기대를 자기 소망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과 꿈꾸는 것에 관해 재잘거리거나 거짓말을 꾸며낼 때도 자신과 가까운 주변을 재료로 삼죠. 아이들은 주변을 모사하고 선망하며 자기를 만들어나갑니다. 과거에는 위인 전 한 질로 대체되던 꿈의 재료가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변화했고 양육자는 아이에게 많은 경험과 기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엄마도 요리를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주워 모은 음식점 전단지 메뉴를 읊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학대와 방치를 오래 겪어온 헤나(허율)는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게 좋겠냐는 질문에 분석집 '윤복이네' 전단지서 본 윤복이가 부러웠다고 대답합니다. 선망하는 대상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마음이 쓰입니다. 일본 원작을 리메이크한 tvN의 <마더>입니다.

잠깐 원작을 먼저 볼까요. 일본 NTV의 2010년 작, <마더>는 학대당하는 아이를 유괴해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임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원작의 7세 소녀 레나(아시다 마나)는 무척 귀여운 아이였죠. 엄마

와 엄마의 애인이 집 앞에 내다 버린 자기 물건들을 보고 쓸쓸한 표정을 짓다가도 집 안으로 들어서면 천사처럼 웃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이 없어질까 봐,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언제나 환하게 웃는 미소가 애달픈 한편, 고난 속에서도 곳곳하게 밝은 성품을 잃지 않는 아이 캐릭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극 바깥의 시청자들에게 보이는 아이들은 때론 어른이 놀랄 정도로 현명한 말을 할 만큼 조숙하면서도 천진함을 잃지 않아야 하죠. 온갖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건 속으로 던져진 아이의 두려움이나 어두운 감정은 그다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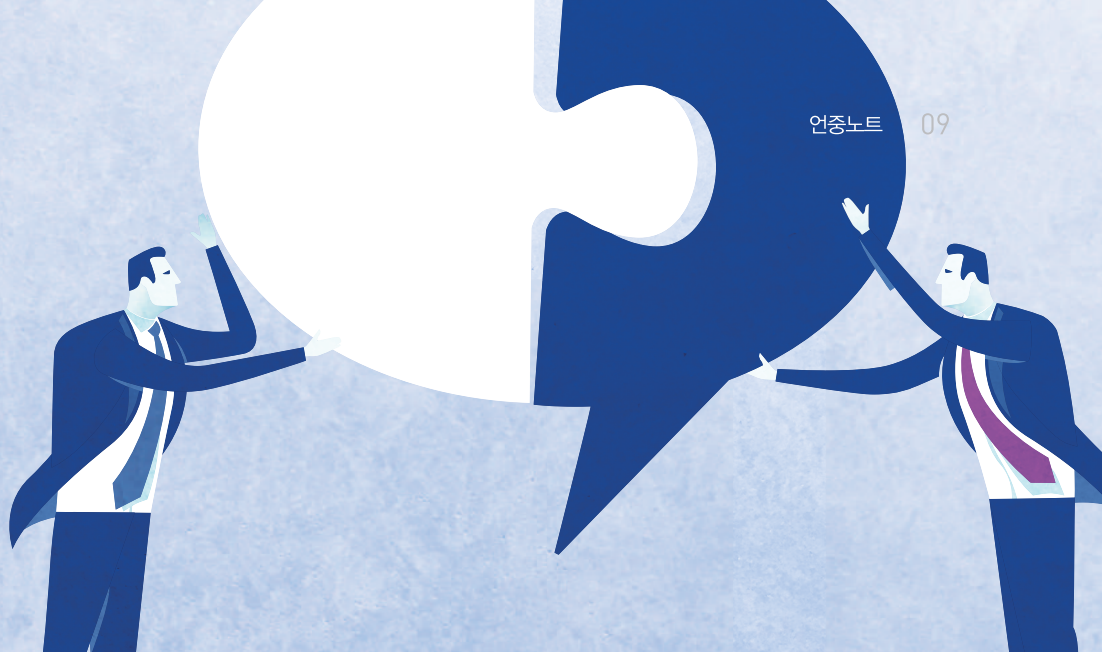
tvN <마더>의 헤나(허율)는 원작의 레나보다 그늘이 짙습니다. 뻔하게 눈치를 보는 모습은 어른들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아이와도 거리가 있고, 괴로울 때 떠올리려고 수첩에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목록도 원작의 레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레나의 수첩에 적힌 음로 '크림소다'는 엄마와 행복하게 지냈던 좋은 시절의 추억이지만, 헤나의 수첩 속에는 아이를 오래 방치했던 엄마가 아침마다 마시다 남은 것을 건네주던 '카페라테'가 적혀 있습니다. 원작의 레나가 '엄마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고 말하는 아이라면, 헤나는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잠시라도 안전할 수 있다'고 느끼는 아이임을 보여줍니다. 주 양육자의 번덕스런 호의나 짜증을 반복해서 겪

은 아이가 크게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려고 자기 기분을 붙들어 매는 모습, 또 비참한 순간을 괜찮은 것으로 가장하는 순간들은 학대 속에서 장기간 방치된 아이의 심리상태를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헤나가 선생님인 수진(이보영)에게 마음을 열고 수진이 헤나에게 신뢰를 얻는 과정 역시 조심스럽고 설득력 있게 다뤄집니다.

원작의 선생님인 나오(마츠유키 야스코)가 레나에게 초구미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가 새롭게 부모로서 책임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나도 곧바로 나옴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름 짓기는 두 사람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로 새로 맺어지는 시작점인 셈이죠. 다양한 모성의 결을 짚어가는 것이 원작의 훌륭한 지점이었다면, 모성에 의지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구원이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또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종종 친권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되는 <마더>는 아이의 마음과 의사를 묻는 것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합니다. 수진이 선생님께서 엄마가 되기로 하고 헤나를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치는 여정의 시작에서, 수진은 헤나에게 무슨 이름을 갖고 싶은가 묻습니다. 윤복이는 그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아이가 이름을 선택하는 장면이 갖는 무거운 의미입니다.

확신의 함정

양재규 | 대전사무소장 / 변호사



휠체어를 탄 신청인은 처음부터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주저했다.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는 같은 단체에서 나온 사무국장의 얼굴을 쳐다보며 “싸인 할까? 말까?” 물었다. 사무국장 역시 섣뜻 결정하지 못하고 공을 신청인에게 넘겼다. “대표님이 정하세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솔직히 답답했다. 볼펜을 달라고 해서 대신 서명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러다 안되지 싶은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결국 신청인은 합의를 거부하고 말았다. 모든 조정이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유독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 왜 이번 조정은 실패한 것일까?

지난 1월 말, 충북에 있는 한 시민단체에서 동일한 언론사를 상대로 총 7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접수했다. 신청인은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다. 신청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신청인 단체 소속 복지사가 수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에 관해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또 신청인 단체 사무국장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해당 시위는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와 적지 않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

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두 가지 모두 다소 무리한 주장이었다.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 ‘개별적 연관성’이니 하는 법률용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기사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은 신청인 단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지목된 복지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부는 부정수급 의혹은 복지사의 개인적 문제로서 신청인 단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권유했고 언론사 역시 한 발짝 양보해서 받아들이고자 했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한 언론사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다. 1인 시위 관련 기사를 쓰면서 본문 어디에서도 신청인 단체가 시위를 주관했다고 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시위를 한 사람이 신청인 단체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신청인 단체 사무국장)가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썼는데 이것도 잘못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도 중재부는 혹시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독자들의 이해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시위는 신청인 단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다는 수준의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권유했다. 이 정도면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최선의 결과가 분명했다. 게다가 사실관계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항변하는 언론사를 설득해서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안이었다. 이 최선의, 심지어 완벽해 보이

고 만 것이다.

패인은 ‘신청인’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한 데에 있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청인을 설득하는 것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언론사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이끌어낸 조정안은 신청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결과이니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의 생각은 달랐다. 소속 복지사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인 단체는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 신청인 단체와 소속 복지사 사이의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간과한 채 마치 ‘꼬리 자르기’를 부추기는 듯한 반론보도문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이 합의안에 신청인은 차마 서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정을 진행하며 인생에 대해 배운다.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중요시되는 조정은 우리 삶과 많이 닮아있다. 남이 보기에 최선이고, 좋은 결과라도 내가 보기에 아니면 아닌 것이다. 때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자신감 내지 확신이 넘친 나머지, 정작 그것을 받아들일 당사자의 의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미닝 아웃의 시대

한기봉 |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2000년 홍석천 씨가 '커밍 아웃(coming out)'을 했다. 그 당시엔 참 생소한 단어였다. '벽장 밖으로 나오다(coming out of the closet)'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에 한정된 용어였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은 '미닝 아웃(meaning out)'의 시대다. 이 용어의 저작권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에게 있다. 그가 발표한 '2018 트렌드 코리아'에 처음 등장한 한국식 조어다. 취향이나 가치관, 정치·사회적 신념에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커밍 아웃에서 진화했다고나 할까.

인스타그램에 '#body positive'라고 쳐보자. 놀랍다. 500만 장 가까운 사진이 뜬다. 주로 수영복 차림 여성들이다. 몰카가 아니다. 자발적 셀카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 뚱뚱한(객관적으로)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외친다. "내 몸이 뭐가 어때서?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나는 이대로의 내 몸을 사랑해." 2~3년 전부터 지구촌에 퍼진 '바디 포지티브(몸 긍정성)' 캠페인이다. 대중문화가 강요하는 '아름다운 몸'의 획일적 기준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운동이다.

이 시대의 티셔츠는 깃발이며 미디어다.

사람들은 티셔츠로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같은 글이 새겨진 슬로건(slogan) 티셔츠는 연대감과 동지애의 아이콘이다. 2011년, 전 세계로 퍼진 'Occupy Wall Stree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서 'Cancel Brexit', 크리스찬 디오르의 'We should all be feminist' 티셔츠는 강렬한 메신저였다. 광화문 촛불시위에서의 '하야' 티셔츠도 그렇다. '남의 집 귀한 자식' 티셔츠는 진상고객에 대한 경고다.

인스타그램에서 '#ootd'를 검색하면 무려 1억 7000만 장 이상의 일반인 패션 사진을 볼 수 있다. '오늘의 복장(outfit of the day)'을 올리고 사람들의 품평을 받는 거다. 문신은 더 이상 조폭만의 정체성이 아니다.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타투'라고 치면 신체에 의미 있는 그림이나 글자를 새긴 130만 장 가까운 문신 사진이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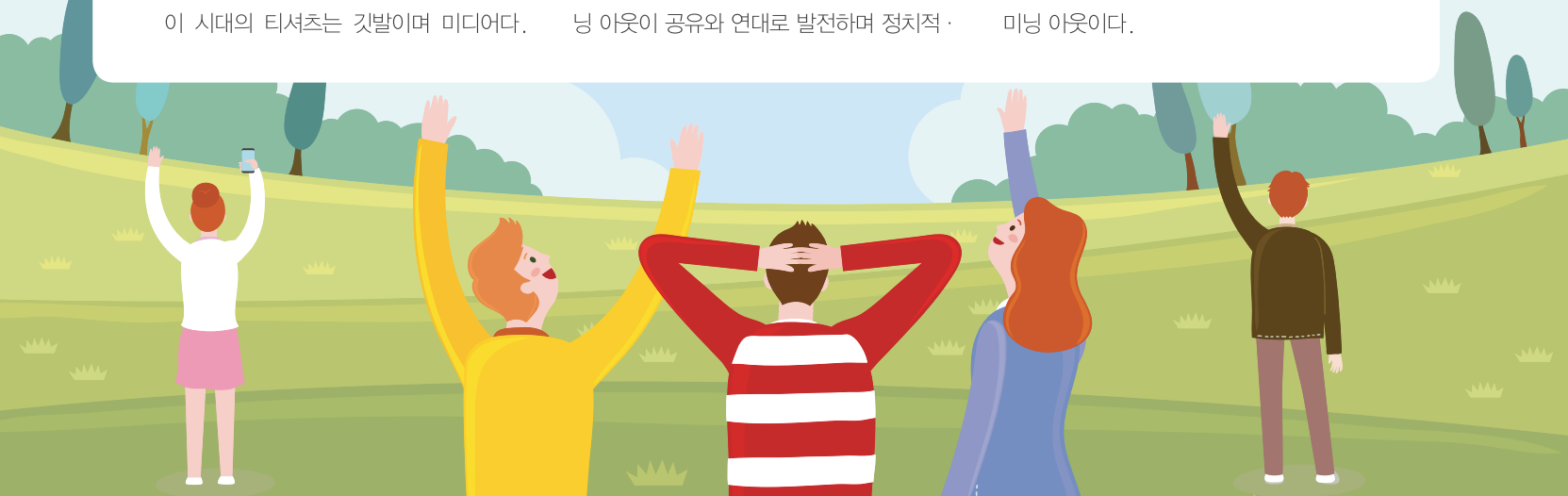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한 젊은이들의 미닝 아웃은 뜻밖이었다. 두 해 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전국의 지하철 역에서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외친 여성들은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이 되고 싶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미닝 아웃의 결집소다. 개인의 미닝 아웃이 공유와 연대로 발전하며 정치적·

사회적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정말 간단한 기호에 불과한 '#' 덕이다. 해시태그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한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가리거나 침묵하고 싶지 않다. 내 취향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시대 정서에 반한 관행에 대해, 정치와 권력에 대해, 불평등에 대해, 부조리에 대해, 가진 자의 갑질에 대해, 공공연한 악에 대해 '모란돌'을 자처한다. 정을 맞을 일 없다. 일부는 불매운동 같은 저항 행동으로 이어지고 타깃은 즉각 응징된다.

소비에서도 미닝 아웃은 두드러진다. 굿즈(goods,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나 캐릭터 상품)를 사 모으고, 가성비보다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를 중시한다. '일점호화'(한 물건에 거금을 쓰는 것)니 '탕진잼'(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니 하는 말도 생겨났다. 그냥 질러버린다. 감성적·기호적 소비다. 그리고 SNS에 인증한다. 그건 시대적 박탈감과 개인적 자존감이 뒤섞인 미닝 아웃이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엄청난 것이 밀려오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다. '미투'는 치부와 속살까지 드러낸, 무엇보다 강렬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시대적 미닝 아웃이다.



샐러드

이용재 | 음식평론가

샐러드는 이래저래 오해를 많이 사는 음식이다. 일단 채소, 특히 풀 중심의 음식이라고 오해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감자 같은 덩이 줄기는 물론 버섯, 렌틸콩 등의 콩류로도 만든다. 물론 계란 샐러드도 있다. 그래서 둘째, 굳이 영양의 불균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섬유질은 기본이고 계란을 필드로 버섯, 콩 같은 재료로 단백질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굳이 차갑게 먹을 필요도 없다. 감자가 따뜻할 때 머스터드와 베이컨 기름에 버무려 먹는 독일식 감자 샐러드 같은 예외도 꽤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샐러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 드레싱이 중요하다. 서양 음식은 대개 '소스+재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액체 상태의 양념인 소스는 대체로 점도가 높아 재료에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한편 간을 비롯한 맛도 보충해준다. 이러한 소스가 샐러드에 쓰일 때 드레싱이라 일컫는데, 특히 다이어트 등 건강을 생각해 샐러드와 좀 더 친해지고 싶을 때 특히 중요하다. 왜 그럴까? '맛의 명석'이라 일컫는 지방 때문이다. 특유의 고소한 맛이지만, 입 안에 맛을 입혀 다른 맛을 증폭 및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그리고 포만감을 비롯한 만족감, 즉 '이만하면 잘 먹었다'는 느낌 또한 책임진다. 그래서 건강식으로 채소 위주의 샐러드를 먹을 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이 흩어질 수 있는 재료를 한 데 잘 아울러 주는 한편 맛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풀일지라도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지방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넘치면 느끼해지므로 물리지 않고 즐겁게 먹으려면 다른 요소가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짠맛 위주의 음식이라면 일단 소금간이 맞아야 하겠지만 그만큼 신맛도 중요하다. '지방을 잘라준다'라는 표현을 쓰듯 느끼함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지방의 느끼함이 미각 전체를 뒤덮으려 할 때 그 허리를 묶이나 두부 가르듯 잘라준다는 의미다. 덤으로 신맛은 입맛을 돋워주는 한편 채소의 씹쓸함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맡는다.

지방이 명석을 깔아주고 신맛이 균형을 잡아준다. 이 두 요소가 샐러드의 맛을 완성하는 드레싱인 비네그레트의 기본 재료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식용유 등 실온에서 액체인 지방에 각종 식초나 레

몬즙 등을 섞어 만든다. 시판 제품을 사서 쓰면 편하고 좋지만, 배합비만 맞추면 만들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산과 기름을 1:2~3의 비율로 맞추고 소금과 후추, 다진 마늘 등을 더한다. 먹고 남은 과일 잼 병 등에 산을 먼저, 기름을 나중에 넣으면 높이를 기준으로 계량이 쉽고, 뚜껑을 닫아 가볍게 흔들어 주면 유화가 일어나 섞이니 만들기도 쉽다.

드레싱 다음으로는 '치수'가 중요하다. 냄 공사도 아닌데 물을 다 스린다니 뜬금 없게 들릴 수도 있겠다. 재료의 물기를 잘 건어내야 한다는 말이다. 샐러드의 치수에 실패하면 드레싱이 재료의 겉에 잘 입혀지지도 않을뿐더러, 신맛이나 짠맛 등도 흐려져 전체적인 맛도 결국 없어져 버린다. 상추 등의 이파리 채소는 골이 저 있는 등 생김새 때문에 물기를 잘 털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채소 탈수기(salad spinner)가 필요하다. 채소를 담고 뚜껑을 덮은 뒤 손잡이를 누르거나 끈을 잡아당기면 안쪽의 바구니가 돌아가며 원심력으로 채소의 물기를 털어주는 원리다. 바깥쪽 통의 바닥에 고인 물기를 버리고 돌려 털기를 서너 번 되풀이하면 손으로 터는 정도로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송보송한 채소를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 물론 삼겹살 등의 직화구이에도 한층 더 맛있게 곁들여 먹을 수 있다.

드레싱을 만들었고 채소를 비롯한 재료의 손질 및 물기 털기도 끝났다면 샐러드를 버무릴 차례다. 계란이나 차갑게 먹는 감자 샐러드 같은 종류라면 맛이 어우러지도록 잠깐 두었다가 먹는 게, 채소 위주라면 먹기 직전에 버무리는 게 좋다. 그래야 삼투압 현상으로 채소의 수분이 배어 나와 숨이 죽지 않는다. 김치를 위한 채소를 절이는 것과 원리는 같되, 요령은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비네그레트의 지방이 채소에 골고루 버무려져야 샐러드의 맛도 균일해지므로, 좀 크다 싶은 넓은 대접의 바닥에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드레싱을 붓는다. 그리고 채소 등 재료를 올린 뒤 국자나 포크 등으로 퍼올 리 듯 가볍게 뒤적여 버무린다. 견과류나 올리브, 간 파르미지아노 치즈 등을 함께 버무리거나 샐러드 위에 뿌리면 고소함, 감칠맛 등으로 샐러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



모스크바에 현대미술이 없다고? 고리키공원 '더 개러지'를 보면 생각이 바뀔 걸!

이영란 | 미술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하면 '동토(凍土)'가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와도 아주 멀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9시간이면 이 도시에 당도합니다. 파리나 뉴욕에 비해 훨씬 가깝지요. 날씨도 그렇습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한파를 겪었잖아요? 연일 특보가 발령됐고, 한강도 꽁꽁 얼었더랬죠. 그런데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 모스크바(55°)가 외려 덜 추웠습니다. 추위가 절정을 이루던 지난 1월 26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7.8℃였습니다.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25℃까지 내려갔고요. 반면에 같은 날 모스크바는 -10℃였습니다. 북극권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왔는데, 모스크바는 두꺼운 구름층이 냉기를 막아 덜 추웠대네요. 기후변화로 지구촌 날씨가 요동을 치는군요. 날씨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모스크바에 근사한 현대미술관이 오픈하여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러시아는 중세 종교미술이 대단했고, 근대에는 칸딘스키, 말레비치, 로드첸코 같은 걸출한 아티스트를 배출했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주역들이죠. 추상미술의 주요 사조인 구성주의, 절대주의, 구축주의 운동도 활발했고요.

리얼리즘의 대가 일리아 레핀도 있었네요. 그러나 1917년 소비에트혁명 이후 선동적 미술이 득세하면서 순수미술은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최근 들어 재능 있는 미술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현대미술관이 없어 뻘어나가질 못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로만 아브라모비치(1966~)가 15살 연하의 부인 다사 주코바(1981~)와 손잡고 모스크바에 본격적인 현대미술관을 열어 화제입니다. 이 커플은 지난 2015년 6월, 모스크바 도심 고리키공원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뮤지엄을 열었습니다.

고리키공원은 러시아 사회주의 문학의 태두인 막심 고리키를 기리기 위해 시(市)가 1920년경 조성한 공원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을 닮은 웅장한 정문을 들어서면 울창한 수목과 호수 사이로 "아! 저 건물, 틀림없이 미술관이겠네"란 느낌을 주는 초현대식 육면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은빛의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외관을 마감한 건물은 가로길이가 엄청나게 길니다. 초현대식 기차 같다고 할까요?

이 미술관의 명칭은 '더 개러지 현대미술관



1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서울대미술관. 건축가 렘 쿨하스의 특징이 잘 배어 있다.

(The Garage Museum of Contemporary Art)'입니다.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차고'라는 뜻의 '개러지(Garage)'를 붙였네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모비치와 주코바 커플은 이 미술관을 열기 전에, 버스차고로 쓰이던 도심 북쪽의 근대 건축물을 개조해 뮤지엄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 지은 명칭이 '당대 문화를 위한 차고센터'였습니다. 버스차고에 맞춰 개러지라 명명하고, '몸풀기'를 한 거죠. 억만장자 부부는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거장(멜니코프)이 지은 건물의 내부만 개조하고, 제임스 터렐, 윌리엄 켄트리지 같은 쟁쟁한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유례없는 전

2 일본의 앤디 워홀로 불리는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도 더 개러지 뮤지엄에서 열렸다.



시였죠. 그러자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미술계 인사들이 러시아로 날아왔습니다.

버스차고에서 수준 높은 기획전을 잇따라 개최해 호평을 받은 아브라모비치 커플은 고리키 공원에 최종적으로 '더 개러지 뮤지엄'을 조성하게 됩니다. 건축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거장 렘 쿨하스(1944~)가 맡았습니다. 쿨하스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현대 도시건축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요. 각국의 미술관도 많이 설계했지요. 1996년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건축철학과 현대도시에 대한 논리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독설로 가득 차 주목을 끌었습니다. 탁월한 이론가이기도 한 그는 건축계 최고의 상(賞)인 프리츠커상(2000)과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황금사자상(2010)을 수상했습니다. 건물 중앙이 땀 뚫려 있는 베이징 CCTV 사옥과 명품브랜드 프라다의 뉴욕 및 LA 플래그십스토어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한국에서도 프라다 트랜스포머(2009 경희궁), 삼성미술관 리움의 아동교육문화센터, 서울대 미술관 등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미술관은 공중에 붕 떠있는 형태가 무척

독특합니다.

쿨하스는 주코바의 의뢰를 받아 1968년 레스토랑으로 지어졌다가 20년 넘게 방치된 건물을 뮤지엄으로 개보수했습니다. 쿨하스는 "우리는 건물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붕괴를 보존하는 것"이라 했지요. 옛 식당의 장식적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가며 현대적 디자인을 융합한 거죠. 2014년 말 공사가 끝나자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외관을 마감한 5,400평방미터의 2층짜리 장대한 육면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느라 2,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더 개러지 뮤지엄은 해마다 7~8건의 초대형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형 전시홀이 5개나 되고, 공연장과 극장, 카페가 어우러져 1년 예산이 무려 1,500만 달러라고 하네요. 풍부한 자금력을 무기로 쿠사마 야요이, 루이스 브루즈아, 우고 론디노네 초대전 등 '빅 이벤트'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니켈 등의 자원개발로 거대한 부(富)를 축적한 뒤 영국의 축구명가 첼시를 인수해 유명해진 아브라모비치는 주코바를 앞세워 모스크

바의 '아트 신(Scene)'을 일거에 바꿔놓은 셈이지요. 이 커플은 지난 2008년, 프란시스 베이컨의 '트립틱'(1976년작, 8,630만 달러)을 비롯해 초고가 작품을 잇달아 사들이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컬렉션이 쌓여가자 뮤지엄을 만들었고,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낙후된 러시아 현대미술을 부흥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전시가 줄을 이어 더 개러지 뮤지엄은 이제 '모스크바에 가면 꼭 둘러봐야 할 문화명소'가 됐지요.

다른 나라 패트론이 30~40년은 걸려야 할 일을 이 부부는 불과 1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대단한 속도요, 파워입니다. 이는 물론 아브라모비치의 엄청난 재력(자산 103억 달러, Forbes)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라 서구 미술계와 빠르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주코바의 돌파력도 주요했지요. 세련된 모델 출신의 주코바는 야심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더 개러지 뮤지엄의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러시아에 현대미술의 꽃이 활짝 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의 커플이 작년 8월 갑자기 결별을 선언해 문제가 생겼네요. 샤프트 페테르부르크의 유서 깊은 뉴홀랜드 섬(1만 평)을 예술섬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충돌을 겪은 게 원인입니다. 18세기 러시아 표트르대제가 조성한 뉴홀랜드 섬에 매머드 문화시설과 주거 및 상업시설을 들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벌이다가 갈등을 빚은 모양입니다.

러시아 개혁개방기에 국영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서른의 나이에 '올리가르히(Oligarch: 신흥재벌)'가 된 러시아 최고의 부호는 세 번째 결혼마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발표하며 "더 개러지 뮤지엄과 뉴홀랜드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천명했지만 과연 아브라모비치가 '사업과 축구'처럼 '현대 예술'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러시아 현대미술이 계속 뻗어나갈지 기원해봅니다.

위원동정

◆ 중재부장 사퇴

법관 인사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중재위원 직을 사퇴한 중재부장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법관 인사발령에 따른 사퇴 : 12명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전입법원 및 직위	사퇴일자
서울제1중재부	이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18.2.25.
서울제2중재부	오성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18.2.25.
서울제4중재부	이태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18.2.25.
서울제6중재부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2018.2.25.
서울제7중재부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8.2.12.
서울제8중재부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8.2.12.
부산중재부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8.2.12.
광주중재부	최수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2018.2.28.
대전중재부	방승만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8.2.25.
강원중재부	김동국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2.25.
충북중재부	양태경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2018.2.25.
경남중재부	정재규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8.2.25.

•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사퇴 : 2명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사퇴일자
서울제5중재부	오선희	•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2.25.
전북중재부	박강희	•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2.25.

위원회 뉴스



◆ 2018년도 제1차 예비법조인연수 실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2주간의 예비법조인 연수가 마무리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3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언론법제 및 조정·중재에 관한 특강과 분쟁 해결 실무 체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모자이크된 사진의 초상권 침해 여부와 내사종결된 사건의 추후보도 청구 가능 여부'를 주제로 모의토론과 모의조정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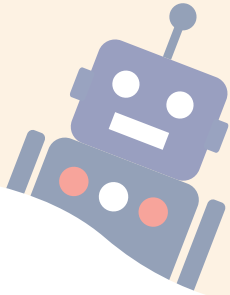
◆ 제7회 전국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 출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2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영률 위원(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을 심의위원장으로 윤원구 위원(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150일간 운영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 안영률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위원장) △ 윤원구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 남영진 (전)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이완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김민전 경희대 휴머니티스 칼리지 교수 △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따뜻한 아이디어



Goedzak

가져가고 싶은 쓰레기봉투 훗사크 (Goedzak)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생겨난 쓰레기 문제, 세계은행은 2025년까지 연간 22억 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쓰레기 관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비롯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물건'이 아닌 '기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기특한 재활용 봉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훗사크(Goedzak)'라 불리는 봉투인데요, 네덜란드어로 '좋은 일을 하는 가방'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훗사크는 투명하게 디자인되어 이웃이나 행인들이 쉽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훗사크에 물건을 담아 집 앞에 두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립지나 여러 기관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쓰레기의 개념을 바꾼 이 아이디어는 텔프트 공대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이 오랫동안 방치되다 버려지는 물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나에게서는 불필요한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훗사크는 여러 재활용 업체나 기부단체와 협력하여 네덜란드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훗사크가 확산되고 있다네요.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지키고, 소소한 기부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달의 따뜻한 아이디어, 훗사크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공모 분야

〈기획논문〉 현 미디어 법제 진단과 개선방안(연구제안서 제출 필요)

- 미디어 관련 법률 발의안 종합적 분석
- 정보기본권에 관한 다면적 접근
-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입법 쟁점
- 미디어 법상 언론인 개념 정의 고찰
- 온라인 뉴스 및 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
(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 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출 마감

〈기획논문〉

제안서 제출마감 : 2018. 3. 6.(화) 까지

논문 제출마감 : 2018. 5. 15.(화)까지(연구제안서 채택된 분에 한함)

〈연구논문〉

논문 제출마감 : 2018. 5. 15.(화)까지

제출 방법

이메일(journal@pac.or.kr)로 제출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